

■ 주요 업무 사례 ■

취업규칙무효확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

지평 노동팀은 항공장치 제조 회사를 대리하여,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.

지평 노동팀은 파기환송심 사건에서도 회사를 대리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.

이에 법원은 위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

[담당 변호사]



김성수 변호사



이광선 변호사



구자형 변호사



이성준 변호사